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파하던 세상에 선교사들을
내보내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교 사업을 사랑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함

“영혼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며,
장로들은 …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설득하고 권유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된 후에, 조셉 스미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했다. 4월 한 달 동안, 친분이 두터운 조셉 나이트 일세를 방문하기 위해 그는 뉴욕 주 콜스빌로 갔다. 조셉 나이트와 그의 가족은 이미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선지자는 근처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기 시작했다.”¹ 약 2개월 후 두 번째로 콜스빌을 방문했을 때 선지자는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몇몇이 침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지자의 다음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개종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토요일 오후에는 침례식을 가질 목적으로 근처에 있는 내를 가로질러 독을 쌓았다. 그러나 밤에 폭도들이 모여 독을 허물었으며 그 때문에 안식일에 갖기로 한 침례식이 지체되었다. … 월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적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눈치채기 전에 독을 보수했으며, 열세 명이 올리버 카우드리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머 스미스, 헤제카이아 펙과 그의 아내, 조셉 나이트 일세와 그의 아내, 윌리엄 스트링햄과 그의 아내, 조셉 나이트 이세, 아론 컬버와 그의 아내, 리바이 [홀], 폴리 나이트 및 줄리아 스트링햄.”²

그 해 가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 이 세, 팔리 피 프랫 및 지바 피터슨 등에게 “레이맨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교리와 성약 28:8; 30:5~6; 32:1~3)고 계시하셨다. 이 선교사들은 약 2,400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뉴욕 주 세네카, 오하이오 주 와이앤도트, 인디언 지역의 델라웨어 및 웨인을 포함하여 여러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서 잠시 전파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지역에 머물렀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로 시드니 리그돈의 개혁주의 침례교 신도들로 구성된 약 130명의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그리하여 그 이듬해에 열릴 수백 명의 교회 회원들을 위한 집합 장소가 될 곳을 개간했다. 선교사들은 또한 훗날 시온 성이 건설될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정착민 가운데서에서도 개종자들을 찾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파를 하든 세상에 선교사들을 내보내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교 사업을 사랑했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1839년에 있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 형제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하는 동안 어떤 큰 교회에서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약 삼천 명 가량이 모였다. 리그돈 형제가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교했다. 그가 설교를 끝냈을 때, 조셉 형제는 마치 울부짖으려는 사자처럼 일어났으며,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 큰 권능으로 말씀하며, 자신이 보았던 시현과 누렸던 천사의 성역, 그리고 어떻게 물문경의 판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만일 하늘에서 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지와 것처럼 영광스러운 기록을 발견한 것에 대해 아무도 간증할 용기가 없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의와 정의로써 그 기록에 대해 간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제 간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온 회중은 그가 말하는 진리와 권능, 그리고 그가 언급한 경이로운 일들에 놀라 마치 감전된 듯했고 압도되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전해졌으며, 많은 영혼이 무리 안으로 모였다. 나는 그가 충실하고 강렬한 간증을 통해 자신의 옷을 그들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했음을 간증한다.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³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세상은 영적 암흑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1834년, 조셉 스미스와 커틀랜드에 있는 다른 장로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은 형제로서의 형제애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왕의 권능과 다스림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달을 때, 여러분은 보잘 것 없는 형제들인 우리가 주는 권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잠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캄캄함이 세상 주민의 마음을 덮으며, (이사야 60:2 참조) 온갖 죄악이 인간들 가운데서 증가하고, 극악무도함이 자행되고, 새로운 세대는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가운데서 자라나며, 노인들은 모든 확신을 잃고, 심판의 날에 대한 모든 생각은 제쳐 두는 것처럼 보이며, 무절제, 부도덕, 사치, 교만, 마음이 눈먼 것, 우상, 무정함,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무관심이 하늘의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불신앙이 널리 퍼지고, 자포자기하여 자신을 부정하며 가장 사악한 행위로 내던지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 속임, 이웃의 명성을 공격함, 도둑질, 강탈, 살인, 실수를 옹호하고 진리를 반대하며, 하늘의 성약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연한 가운데 주님의 날은 속히 다가올 것이며 그 날에는 오직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평강의 왕인 신랑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진리에 감동 받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맞본 사람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6:4~5 참조) 이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위협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 외에 그 누가 세상의 통탄할 상황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창조물들을 위한 희생을 마련하시기 위해 낮추어 오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생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부지런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속의 계획, 속죄의 권능, 구원의 계획, 그리고 최대의 목적으로서 사람을 하늘 왕의 면전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그들에게 해의 왕국의 관을 씌우고, 그분의 아들과 더불어 썩거나 더럽혀지지 않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베드로전서 1:4 참조)을 깨닫지 못한 그 누가 완전하게 생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부지런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그러한 것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간주될 것이며, 또한 세상을 채우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⁴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이방 나라에 경고를 전파하기 전에 멸망의 천사가 세상의 주민들을 황폐케 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며, 선지자가 말했듯이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일 것입니다.(이사야 28:19 참조)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제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빠져드는 비참한 상태에서 제가 그들을 구해 낼 수 있다면, 그들이 악한 날에 설 수 있도록 제가 경고의 음성으로 그들을 진지한 회개로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⁵

“우리의 영향력이 지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으로 전해지고, 부패한 성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항하는 모든 왕국을 산산이 무너뜨리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영원한 복음의 빛과 진리를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서 모든 충절과 의로움으로, 서로에게 맺은 맹세와 성약을 수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⁶

제4대 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회고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사악함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 세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며, 악마와 세상과 지옥이 여러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지옥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⁷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이 복음의 축복을 취하도록 외치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이 일은 인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온 인류에게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을 받아 구원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온 인류에게 회개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인용문들을 통해 이를 보여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45~47)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성신의 은사]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38~39)

“이를 통해 우리는 성신의 약속이 회개의 교리가 전파된 많은 사람들에게, 즉 모든 족속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늙은 자나 젊은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모두에게 회개의 교리를 전파할 것을 믿습니다.”⁸

“영혼은 그 이전에도 늘 그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설득하고 권유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이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이 호산나를 노래하게 합시다. (이사야 61:1~2 참조)”⁹

“장로들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해 과감히 일어서서 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과 성신을 위해 침례 받도록 경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¹⁰

“저는 주님께서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성직자와 일반인, 종교를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 그리고 지상의 나라들에 압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물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권능에 성임되고 인봉된 사람의 안수에 의한 의식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성경과 물몬경에 따른 것이며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성약의 요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원리들입니다.”¹¹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해(권세 있는 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¹²

**주님의 종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는다.**

“누군가를 중앙 아메리카로, 누군가를 멕시코 및 미국 내 스페인어 사용 지역으로 보내십시오. 이 세상에 선교사가 가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도록 하십시오.”¹³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와서 더 얻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¹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 은사와 축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그에 수반되는 악과 함께 진리의 힘 앞에서 물러나고 있으며, 진리의 온화한 빛은 먼 나라들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고, ‘몰몬이즘’은 곧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되며 잊혀질 것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시간은 덧없이, 혹은 파도의 거품처럼 지나갔으며, 이제 몰몬은 몰몬이즘을 반대하도록 배웠던 편견을 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몰몬을 탐구하겠다는 고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¹⁵

“십이사도 중 몇몇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1839년 9월에] 유럽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으며, 그 선교부로 부름 받은 나머지 사람들도 며칠 내로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님의 사업은 이 대륙이나 구대륙에서 무척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에 수백 명의 회원이 추가되었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호세아 7:8)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요한복음 10:27),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누가복음 10:16),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예레미야 31:8) 요한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내[오라]’(요한계시록 18:4)는 말을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며, 주님의 백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요한계시록 18:2)라고 할 때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¹⁶

1839년 3월 리버티에서 쓴 편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후에 교리와 성약 123편 12절에 기록되었다. “이는 아직도 땅에는 모든 교파와 당파와 종파 가운데, 미혹하려고 앞드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 눈이 멀게 된 자들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음이니라.”¹⁷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150쪽에 있는 둘째 및 셋째 단락을 복습한다. 우리 선교사들은 때때로 회복과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 위해 왜 용기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러한 용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영적 암흑에 대해 설명한 후 회복된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 간증했다.(151~153쪽) 이 두 가지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누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가?
- 153쪽 첫째 단락을 읽는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 여러분 곁에 서 계셨는가?
- 온 인류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조셉 스미스가 인용한 성구를 깊이 생각한다.(153~154쪽)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토론한다.
- 154쪽 넷째 단락을 읽는다. 그 부분에서 선지자는 속박되고 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선교 사업에 대해 말했다. 어떤 면에서 일부 사람들은 매인(속박된) 자들인가?(이에 대한 몇 가지 예는 151~153쪽을 참조한다.) 어떤 면에서 복음의 첫째 원리와 의식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가?
- 155쪽 셋째 단락에 있는 선지자의 권유를 복습한다. 이 권유는 어떻게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배우도록 장려할 수 있는가? 155쪽 넷째 단락과 본 장의 마지막 단락을 복습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은 사람들이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지를 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관련 성구: 마가복음 16:15~20; 니파이후서 2:8; 앨마서 26:1~9, 26~37; 교리와 성약 42:6~9, 11~14; 88:77~83

주

1. *History of the Church*, 1:81;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39~40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 *History of the Church*, 1:86~88;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42~43쪽, 교회 기록 보관소.
3. Parley P. Pratt,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편집. Parley P. Pratt Jr. (1938년), 298~299쪽;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4. *History of the Church*, 2:5~6; 현대화된 구두법; “The Elders of the Church in Kirtland, to Their Brethren Abroad”에서, 1834년 1월 22일, *Evening and Morning Star*에 게재됨, 1834년 2월, 135쪽.
5. *History of the Church*, 2:263; 조셉 스미스가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1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1월, 211쪽.
6. *History of the Church*, 2:375; 1836년 1월 1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있었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 기록에서, 워렌 페리쉬가 보고함.
7. 윌포드 우드럽이 인용함, *Deseret News*, 1884년 7월 30일, 434쪽.
8. *History of the Church*, 2:255~56;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9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9월, 180~181쪽.
9. *History of the Church*, 2:229, 각주;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에서, *Messenger and Advocate*, 1835년 6월, 138쪽.
10. *History of the Church*, 2:263; 조셉 스미스가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 1835년 11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5년 11월, 211쪽.
11. *History of the Church*, 1:314~315; 조셉 스미스가 엔 시 색스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3년 1월 4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색스톤(Saxton)씨의 이름은 *History of the Church*에 “N. E. Seaton”으로 철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12. 리차드 새버리에게서 온 편지에 대한 편집인의 답장, *Times and Seasons*, 1842년 3월 15일, 732쪽; 현대화된 대문자 표기법,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13. *History of the Church*, 5:368; 1843년 4월 19일에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4. *History of the Church*, 5:259; 1843년 1월 22일에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이 보고함.
15. *History of the Church*, 4:336~337; 현대화된 철자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로부터의 보고에서 발췌, 1841년 4월 7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4월 15일, 384쪽.
16. *History of the Church*, 4:8~9; 현대화된 구두법; 조셉 스미스가 아이작 깔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9년 9월 11일, 일리노이 주 커머스.
17. 교리와 성약 123:12; 조셉 스미스와 그 밖의 사람들이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교회에 보낸 서한, 1839년 3월 20일, 미주리 주 리버티, 리버티 감옥.